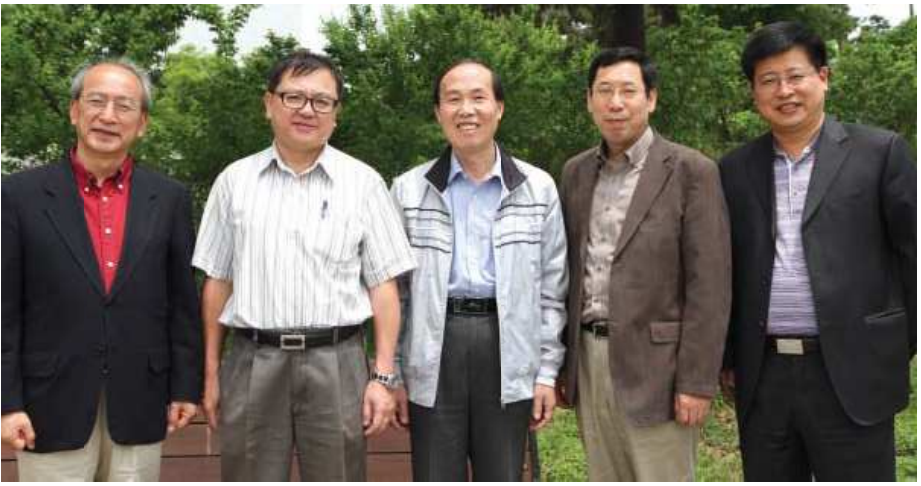


강영안: 머우쭝산이나 뚜웨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쇼초 어떠한 민족주의도 자기 민족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머우쭝산이나 뚜웨밍의 유교적 보편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강영안: 바디유의 경우 바울을 보편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왕교수님은 보편주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왕쇼초 보편주의란 여러 문화 속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보편주의란 용어를 보면 중국에서는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보편주의=서양가치=기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스스로 자신이 가진 보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한국이 보편주의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국이 주최하고 있는 세계박람회나 월드컵 등은 보편주의 추구와 연관되어 있다.

신국원: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와 선교에 치중하다 보니 신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양국이 서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일본도 공공신학에 치중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왕쇼초 서로 다르기에 대화의 의미는 더 깊다. 서로 같다면 대화가 필요하겠는가? 다르기에 대화의 공간은 넓으며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로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싶다.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와연구센타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 ICCS)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가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위한 철학·사회과학 창신 기지를 설립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개방적인 연구단지이다. 기독교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타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주임으로는 왕쇼오초(王晓朝) 교수가 맡고 있다.

절강대학교(浙江大学)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있으며 중국내 대학 평가 서열 3위의 교육부직속의 대학으로써 국가 중점대학이다. 1897년 "求是書院"으로 개교했으며 1998년 3월 절강대학교, 항주대학교, 절강농업대학교, 절강의과대학교가 합병되어 현재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도서관은 중국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60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만 42,000여명에 이른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왕쇼초 교수의

"공공신학과 한어신학의 관계가 중국학술계에 미치는 영향" 요약문

왕교수의 논문은 중국에서 공공신학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I장에서는 신학의 공공성의 의미를 교의와 신앙의 해석과 적용을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공공생활을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시민, 사회와 정치생활의 형성을 돕는 노력으로 정의한다. II장에서는 교회의 신학에 머물러 있던 한어신학이 1978년의 중국사회개혁개방을 계기로 하여 공공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학술계가 현실정치에 종속되고 계급투쟁의 틀 안에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종교가 문화의 핵심으로 인정받게 됨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다방면에서 시작되었다. III장에서는 한어신학이 비교회성(교파초월성)이라는 중심적 특징에 인문성, 타문화성, 중국대륙의 기독교학술연구와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IV장에서는 한어신학이 지향해야 할 공공신학의 규범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1) 중국국정의 특성상 신학원과 신학학과 개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학자는 종교, 정치, 학술, 경제 등이 지니는 공정의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앙접어두기" 곧, 교리적 언어를 사용하는 호교적인 신학을 배제하고 학술적, 객관적,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다른 관점의 학자들 및 연구기관들과 개방적으로 대화하되 특정한 신학의 입장을 표방하거나 구조의 체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3) 중국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어집단의 생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답변해야 한다.

이상원 교수의 반론

신학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신학은 개인구원의 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안 되며, 교회 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영역들이 지니는 신학적인 함의와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은총론의 맥락에서 정치, 경제, 예술, 기타 모든 문화의 영역에 고유한 법칙과 언어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 영역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와 부패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부분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의 지도를 받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공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사회도 이런 삶의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다. 왕교수가 제안하는 "신학자는 종교, 정치, 학술, 경제 등이 지니는 공정의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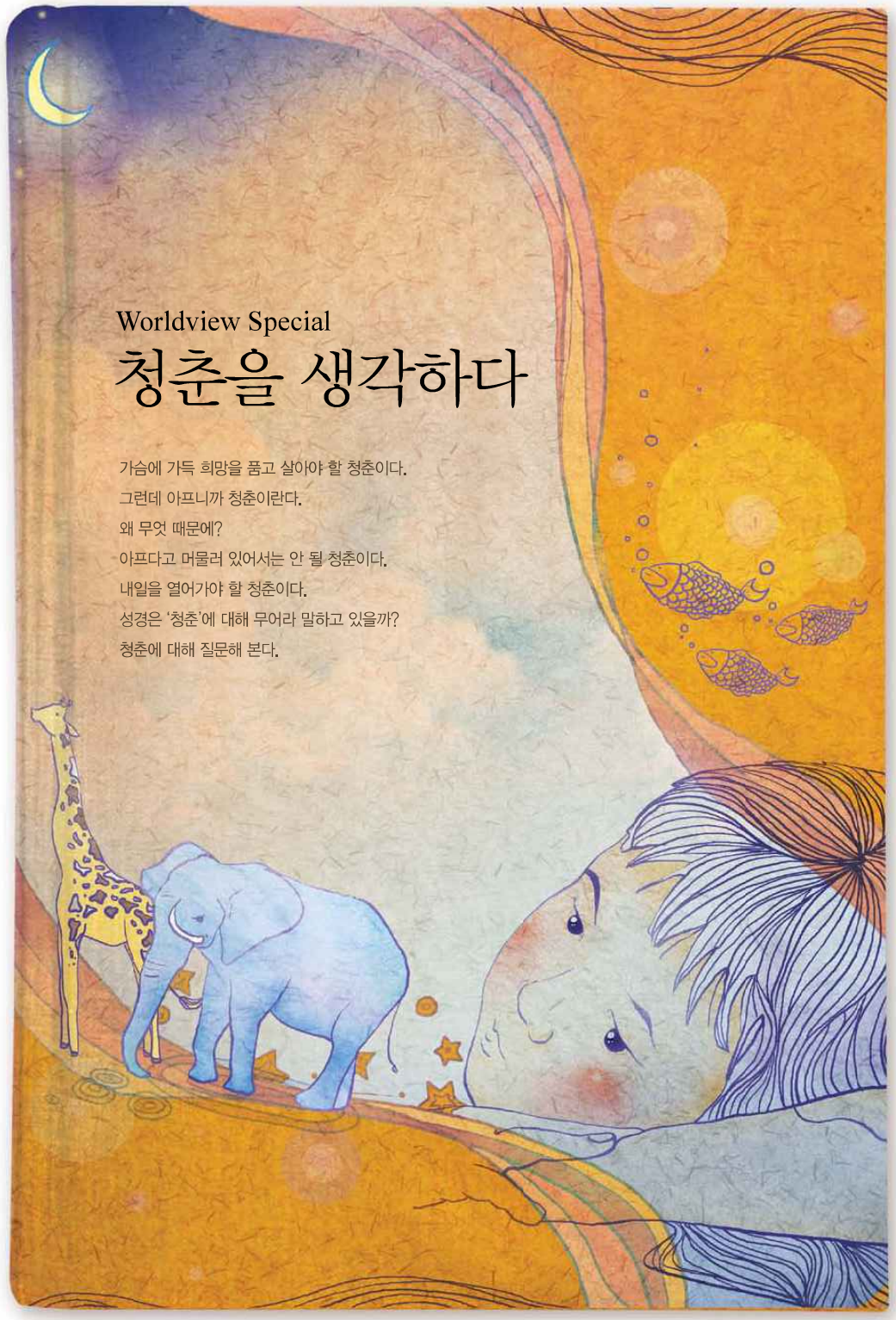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왕교수의 설명이 요청된다. 1) 왕교수는 기독교신학을 호교학으로 만들지 말고 공공학술의 방법론에 순응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괄목할 만한 정도의 호교학적인 신학이 발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에 체계화된 호교학이 존재한다면 전략상 호교학을 공공영역에 도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지만 체계화된 호교학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호교학을 경계하고 나선다면 자칫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지 않은가? 2) 공공사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신학을 말하고 호교적인 내용을 말하지 말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공공사회에 대하여 특정종교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을 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은 종교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3) 왕교수가 말하는 공공사회에 있어서의 공정 특히, 정치 및 경제적 의미의 공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쇼초 교수의 답변 요지

1) 중국 기독교계에 호교신학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은 중국교계를 향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본다. 본인은 중국의 교회신학과는 구분되는 한어신학에 국한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계 안의 문제인 호교신학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본인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교적인 입장을 일관성 있게 취해 왔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비난이나,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일 뿐 중국에는 맞지 않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나,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학문적이 아니라는 비난에 대하여 본인은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며, 기독교가 단지 서양의 종교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는 학문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종교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아마도 중국 기독교는 이 공헌에 대하여 본인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2) 공공사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인도 동의한다.
3) 중국의 공공사회에서 이해하는 공정의 개념도 한국의 공공사회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은 중국의 공공사회에서의 공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1. 약자보호, 2. 빈부의 격차 해소, 3. 전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

(정리: 이상원)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부교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석사(조직신학), 네델란드 캄펜 신학대학원 박사(기독교윤리)을 거쳐 독일 부퍼탈 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한국디곡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 장현소망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Worldview Special

청춘을 생각하다

가슴에 가득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 청춘이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란다.
왜 무엇 때문에?
아프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청춘이다.
내일을 열어가야 할 청춘이다.
성경은 '청춘'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청춘에 대해 질문해 본다.